

# ‘청정에어 광산’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성과 시민보호 미세먼지 안전망 구축 공기산업 육성 거점역할 담당 전망

광주 광산구가 친환경 공기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광산구는 3년에 걸쳐 추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공기산업 기반을 넓히는 한편 내년 초 개소하는 중소기업복합센터를 필두로 공기산업 중심지 조약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자치구에서 이를 시도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광주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광산구는 총 182억 원을 들여 ▲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 개발 ▲시민친화적 시범실증단지 구축 및 운영 ▲광산구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 세 가지 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장 먼저 선보인 성과물은 고정밀 1등급 미세먼지 측정 센서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1등급 인증까지 완료한 광산구는 이동형, 전신주형, 지주대형 등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보급이 쉬운 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해 총 180곳(지주형 68곳, 전신주형 102곳, 이동식 10곳)에 설치 완료했다.

광산구는 미세먼지 측정센서 등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알림 애플리케이션 ‘에어광산’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배포·운영 중이다. 해당 앱에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약한 공원과 산 등의 최적 경로, 산책로 알림 등 각종 편의 기능도 탑재됐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개발한 고정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광산구는 숨쉬기 편한 일상을 위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첨단 시스템도 활발하게 가동 중이다. 광산구는 버스승강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정정·환기 시스템을 개발해 광산구청사를 비롯한 10개 승강장에 설치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을 거리의 ‘나쁜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지대 격이다.

3년에 걸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기산업을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공기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융합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3D 프린터 활용, 제품 설계, 지식재산권 등 385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융합신제품은 총 40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미세먼지 저감 공기살균장치, 생활도로용 초미세먼지 제거 복합 소재, 차량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전기 분해 방식 주방용 공기정정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공기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중소기업복합지원

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께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광산구는 3년의 걸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지역의 산업 구조를 공기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단위사업별 성과를 되돌아보는 최종 보고회를 가진 광산구는 앞으로도 사업성과가 지속하며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 기술개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부처와 연계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역의 힘으로 만드는 길을 제시했다”며 “이 결실이 시민 삶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작은 보탬이라도”

### 월곡1동에 익명 기부

광주 광산구 월곡1동은 “지난 20일 오후 6시 쯤에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시민이 지폐와 동전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익명의 기부자는 “연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며 한 푼 한 푼 모은 동전과 예쁘게 리본으로 묶은 지폐를 놓고 갔다.

최정광 월곡1동장은 “기부자의 따뜻하고 귀



한 뜻을 받들어 연말 도움이 필요한 돌봄 이웃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성과공유회… 발전방안 모색

광주 광산구는 “지난 17일 평등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의 올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전국 최초 ‘자치구형 기업주치의센터’로 설립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현장 방문 179건, 센터 상담 503건, 정부 지원정책 연계 35건 등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717건(11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집중 지원하는 ‘G-SMART(지스마트)’ 기업도 80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향

보고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새로 고침’ 제작 운영, 광산경제 아카데미 개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월별 테마상담, 우체국쇼핑몰 광산구브랜드관 입점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펼쳤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올 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대표와 소상공인 대표 유공자 7명에게 광산구청장 표창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중현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은 “경제도시 광산구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광주 광산구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공익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가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타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 보호나 구제

를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에서 송정동의 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에 대한 첫 비용 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15일에는 두 번째 안전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시 과장광고 여부로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의결됐다.

광산구는 내년도에도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행안부 장관 표창

광주 광산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여부 ▲마을복지계획 우수사례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실적 ▲언론매체 홍보 실적 등 2개 분야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광산구는 전체 21개 동마다 지사협과 주민이 마을복지 계획수립단을 조직하고 마을자원 및 주민 요구 등을 조사해 총 7개 마을복지계획을 발굴·선정했다.

미용서비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세탁, 외국인주민 복귀리미 지원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의제가 쏟아졌다.

이번 수상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광산구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다.

지난 11월 16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마을복지계획을 공유한 광산구는 내년 마을복지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마을복지계획 발굴과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중심이 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다 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주민 참여 유도,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월곡2동 ‘안전마을’ 선정

광주 광산구는 “월곡2동이 ‘2021 광주광역시 안전마을’ 공모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및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매년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광산구 월곡2동은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주민이 합심해 시민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아 ‘광주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선정됐다.

특히 월곡2동 주민자치회는 다국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캠페인 전개, 산정상인회와 연계한 외국인운영 상가의 지속적인 방역 추진,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협조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힘을 보탰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